

추모 무드에 목포 숙박·여행업계 타격

세월호·사드 보복 겹쳐 호텔 등 예약 취소 잇따라

봄꽃 축제 등 각종 행사 최소화로 관광객 발길 '뚝'

세월호가 목포항에 도착하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기존 예약마져 줄줄이 취소되는 등 지역 숙박·여행업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11일 목포지역 숙박·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마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체화복되기도 전에 중국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이어 앞선 데 달친 격으로 세월호까지 목포에 거처되면서 사실상 '제2의 세월호 쇼크'에 빠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수습자 시신 수습과 선체 조사 등 세월호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마르스 사태보다도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여 영세업체들 모두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국내 굴지의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는 임원·팀장급 460~470명이 참가한 가운데 목포 A호텔 등에서 2박3일 동안 '이승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를 취소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분산 수용하려던 목포 3개 호텔의 예약이 전면 취소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액(숙박·식사비 포함)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 고위공직자 교육 연수도 흥도 관광을 위해 30여명이 목포에서 1박을 할 예정이었으나 상급 기관으로부터 세월호 거처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 예약을 취소했다.

무안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가는 유커

(중국인 관광객)를 주로 수용했던 B호텔은 예년 같은 기간이면 객실이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나, 사드 보복 조치로 유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 세월호 여파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세월호 때문에 봄꽃 축제가 취소되고 대신까지 겹쳐 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 개최를 최소화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A호텔 관계자는 "봄철은 관광객이나 기업들의 연수가 많고 행사도 많은 시기인데도, 전반적으로 목포 호텔업계 매출이 40~45% 줄었다"면서 "자칫 세월호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흥도·제주도로 가는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인 목포는 피해 집계가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은 그림자도 보기 힘들고 세월호로 인해 기존 예

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여행업계는 제주도 특가 상품을 선보이며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C업체 관계자는 "3만원에 달하는 관광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1박 2일 제주도 여행 특가 상품을 내놓았지만 문의전화도 오지 않는다"며 "더욱이 5월 황금연휴에 따른 특수를 내심 기대했으나 세월호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로 발길을 돌리거나 아예 예약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지역 관련 업체는 "추모는 당연하지만, 각종 행사를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경건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자치체에서도 이런 업계 실정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행사는 예정대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장성군, 강소농 정예인력 양성한다

40명 선발 맞춤형 교육 추진

경영개선·자립역량 강화 나서

장성군이 하지만 강한 '알짜배기 강소농'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장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중소규모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2017년 강소농 육성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은 농업인에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농업 경영 관리법을 알려주고 이들의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농업경영 개선 의지가 강한 지역농업인 42명을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2017년 강소농 육성 추진 방향과 경영관리 상태를 진단하는 데이터 조사법, 강소농 실천노드 작성 및 활용법 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농가들은 앞으로 특작연구모임과 불루

베리연구회 2개 분야로 나눠 모임별로 이론과 현장교육을 받게 되고, 분야별 자율모임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장성군은 강소농 경영체가 직접 만들어 가는 참여식 교육과 정밀 경영컨설팅과 벤치마킹, 자율모임학습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매년 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경영법을 개선하고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강소농 육성책을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40명의 교육생을 대상 이번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심화교육, 후속교육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부안군 우수 농수특산물 가락시장에 홍보관 오픈

부안군은 "최근 전국 농수특산물 최대 유통규모를 자랑하는 도매시장인 가락시장 내 가락몰에 '부안군 농수특산물 홍보·판매관'을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해 8월 (주)팔도마당과 MOU협약을 체결하고, 입점업체 모집, 직거래사업단 창립 등 사전준비와 가입점을 통해 시범운영을 진행해 왔다.

농업회사법인 (주)팔도마당이 추진하는 팔도 지자체 특산물 전시 홍보·판매관은 전국의 농수특산물을 수탁해 홍보·판매하는 곳으로, 부안군은 2개 점포에 입점해 관내 25개 업체, 총 97개의 다양한 농수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서울 가락시장 내 가락몰은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으로, 특히 주변에 롯데월드, 코엑스, 위례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등 유통인구가 23만명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지역 농수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부안군의 설명이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아동학대 및 생활·교통·사이버 반칙 안돼요"



영암경찰, 미아방지용 팔찌 배부·3대 반칙 근절 캠페인

영암경찰(서장 이근화)은 "최근 '2017 영암왕인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어린이와 국민 등을 대상으로 미아보호소 운영 및 3대반칙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

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가족단위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처·신고요령 등을 홍보하는

한편 생활 반칙·교통 반칙·사이버 반칙 등 3대 반칙 근절 활동을 전개했다. 영암경찰은 또 어린이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미아방지용 팔찌 500여명에게 제작·배부하고, 미아보호소도 운영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kwangju.co.kr

전통문화 향기 물씬, 고창읍성 가요



고창군 고창읍성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최근 '국악상설공연-동리와 놀다'가 열렸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동리와 놀다' 열려

고창군이 전통문화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국악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동리(桐里)와 놀다' 공연이 시작됐다.

올해 첫 공연은 지난 8일 오후 2시 고창읍성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국악상설공연-동리와 놀다'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과 관소리박물관, 신재호 고택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관심을 끌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동리와 놀다' 공연은 지난 해에도 뜨거운 호응을 보여 올해에도 11월 까지 총 14차례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고창읍성 관광은 물론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해 선운산도립공원,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운곡습지를 홍보하는 한편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고창 청보리밭축제' 등과 함께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전북 대표 관광공을 고창군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15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에는 고창읍성 야외특설무대에서 테마공연 '동리정사, 봄꽃 물들다'가 공연되며, 오는 29일 오후 2시에는 '동리와 놀다' 두 번째 공연이, 다음달 13일에는 '동리와 놀다' 세 번째 공연이 예정돼 있다.

한편 국악상설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시설팀 (063-560-804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먼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연사무소 매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읍 약산면 득암리 팬션·시할·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장기투자에 최적 땅 7416㎡ 비탈기암 194천
- 담양군 금성면 경관중용 9710㎡ 전원주택 단지적합 9억2천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입암산길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중용 11억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중용 남향땅 2738㎡ 매도 2억8백

투자·매도·교환

- 독립섬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과도 인근 3억5천
- 중흥동 소방도상산업지 175㎡ 자동차시설 적합 3억천
- 소촌동 자연녹지 1530㎡ 투자에 양호함 10억천
- 유동 상업지 331㎡ 상가·원룸 등 적합 매도 4억6천
- 월산동 보리아파트부근 상가1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장흥군 장흥읍 공업지역 2390㎡ 투자에 좋음 8500만원
- 함평군 해보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4329㎡ 매도 2억천
-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전 5820㎡ 1억2천, 1965㎡ 3천6백
- 대안동 상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무안군 무안읍 전 5293㎡ 농장 전원생활용 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복곡아·매실·감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천

상가건물

- 서구 교통요지 대지 1657㎡ 건물 7768㎡ 요양병원등 적합 49억
- 월산동 대지 126㎡ 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건너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충장로5가 도로점 대지 265㎡ 건평 995㎡ 매도 11억천
- 월산동 문진리부근 대지 160㎡ 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안집은 공실임, 은행 2억천 보증금 9300 월 350천 3년된 건물 매도 6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개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급매 - 1억 500만원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50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